

“교통약자 콜택시 ‘이지콜’, 안심하고 이용하세요”

특장차량 내 비말 차단용 격벽 설치...운전원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접종
교통약자지원부 이설이(063-239-2733) | 2021-5-4



‘이지콜’ 교통약자 특장차량 내 설치된 비말 차단용 격벽

전주시시설공단(이사장 백순기)은 교통약자 승객들이 안심하고 ‘이지콜’ 교통약자 특장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내에 비말 차단용 격벽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.

공단은 휠체어 장애인 전용 특장차량을 대상으로 운전석, 보조석과 뒷좌석 사이에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투명한 격벽을 설치했다.

밀폐된 차량 공간 안에서 운전원과 승객 간 감염병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.

공단은 또 차량 손잡이 등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부분을 수시로 소독하고 승객이 하차한 뒤 의무적으로 환기를 하는 등 차량 방역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.

특히 비희망자를 제외한 운전원 대부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.

백순기 이사장은 “이지콜 차량 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도내 각 시군 교통약자 콜택시 중 최초로 비말차단용 격벽을 설치했다”며 “이지콜을 이용하는 전주시 교통



약자와 운전원 모두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"고 말했다. 끝.

